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다

야호해남은 25명의 귀농·귀촌인이 모여 2011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해온 전병오 대표는 마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외 결혼이주여성과 다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돕고 있다.



소재지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_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안길 110-1(대표: 전병오) 사회적 농장 지정: 2018년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하며 극작과 연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서울을 벗어나 살기로 마음먹고 2006년 해남으로 귀농하였습니다. 귀촌 초반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1년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콩 농사를 하면서 농업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경험했죠. 이와 함께 저희가 그간 해온 문화예술 관련 활동도 시도하면서 마을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서 극단 작품을 할 때도 소수자,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제로 삼았던 터라, 마을에서도 해남 문화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을 하도록 이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민, 해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촌에서는 모두가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가 워낙 적어 면 단위로 마을을 잡고 있는데 면 단위 전체에 초·중·고등학생이 2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주민 가족은 500가구, 가족 수로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6가구가 귀농해 있고요.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해외 결혼이주여성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많습니다. 꽤 높은 비율로 마을에 공존해 살아가지만 마을 구성원의 주체로서 안정받지 못하는 해외 결혼이주민, 귀농인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농장으로 지정된 첫해부터 참여해오셨는데 점진적 변화를 겪고 계신다면 소개해주세요.

2018년도 첫해 목표는 '자립'이었습니다. 귀농자들과 유기농사를 함께 지어 친환경 로컬푸드 꾸러미 활동을 하며 영농활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사가 어려운데다 모두 초보 농업인





들이라 생산량 맞추기가 어려워 자꾸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농업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에 2차 연도부터는 방향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주민,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마을 안에서의 '관계'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서 저희가 운영 하는 사회적 농업의 방향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해오신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주민을 돌봄 매개자로 양성하고, 면 단위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며, 귀농인들을 마을학교 강사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모두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몽골에서 온 해외 결혼이주여성은 주변에 친구도 없고, 우리말에 서툴러 말이 거의 없었고,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었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강사로 우리와 함께 활동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농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주민 자치활동이나 마을학교, 문화예술교육에도 사회적 농업이 가진 돌봄의 가치를 심고자 합니다. 이는 분명 상호작용으로 각 분야를 혁신하리라 기대합니다. 농장 정원, 마을예술놀이터, 돌봄농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큰 호응 속에 진행하고 있는 면 단위 아동 청소년 교육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지역 아동 돌봄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 예정입니다.

농촌에서는 모두가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설령계(몽골 결혼이주여성) 2014년에 결혼하면서 몽골에서 해남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외롭고 심심하게 지냈어요. 이제는 이곳에 와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서 몽골 문화도 알려주고, 함께 웃고 얘기 나누니 너무 즐겁습니다.



이주민 돌봄 매개자

이주민 스스로가 정착을 통하여 지역 내 이주민 돌봄의 주체로 역할을 키워 면 단위 아동 청소년 교육에 강사로 동참해요.



지역 네트워크 중심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역교육지원청(다가족, 마을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동의 영역을 넓혀요.

우리 농장 키워드

주민자치학교 멘토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주민자치학교의 멘토로 참여하여 농촌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운영에 함께 고민해요.

지역 속 사회적 농업 확장



해남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회적 농업 분과, 해남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활동, 사회적 농업 포럼 등으로 사회적 농업 정착과 확장에 힘써요.